

유아기 어머니의 일자리 만족도와 일상적 스트레스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매개효과*

제희선¹⁾ 채혜경²⁾

요약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행복감, 자존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며 아동의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의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첫째, 7차년도 어머니의 일자리 만족도는 어머니의 행복감과 자존감에 정적영향을 미쳤으며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행복감과 자존감에 부적영향을 미쳤다. 둘째, 어머니의 행복감과 자존감은 강한 자기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행복감과 자존감 사이에 상호교류관계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행복감과 자존감이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취업모 어머니의 근로조건이나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 및 어머니의 행복감과 자존감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화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행복감, 자존감, 집행기능, 일자리 만족도, 일상적 스트레스

I. 서론

아동의 성장과정은 자신의 욕구를 사회적 요구와 적절하게 통합적으로 조절하며 전인적인 인간으로 자라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비단 아동뿐만 아니라 인간은 평생에 걸친 연속적인 선택과정 속에서 개인적 욕망과 사회적 과업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며 살아가야 하

* 본 논문은 제9회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회(2018.11.23.) 구두발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1)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BK21plus 연구원

2) 부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수료

므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인 자기 조절은 인격 형성을 위한 중요한 특질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자기 조절 능력은 생의 초기 신체적 조절부터 시작하여 감정, 인지적 조절로 점차적으로 발달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최근 뇌 과학 연구의 진천으로 자기 조절의 생리적 기원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집행기능(executive function)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집행기능은 자신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을 조절하고 계획하고 통제함으로써 맥락에 바람직한 행동양식을 실천할 수 있는 정신 기능이라고 할 수 있으며(Zelazo & Muller, 2002) 실행기능이라고도 한다. 집행기능은 특정자극을 선별, 통제하는 주의조절과 계획능력, 정서를 인지적으로 돌아보고 조절할 수 있는 고등인지 기능으로(송현주, 2012), 인지적 조절과 정서 조절을 담당하는 뇌의 두 영역에서 기원하는 것이 증명되었다(Antonini, Becker, Tamm & Epstein, 2015; Poland, Monks, & Tsermentseli, 2016). 집행기능은 전전두엽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추론과 문제 해결에 해당하는 인지적 집행기능은 동쪽외측 전전두피질에서 이루어지며(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감정적, 동기적 측면에 대한 조절은 내측 전전두피질(medial prefrontal cortex)과 안와전두피질(orbitofrontal cortex)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상신·유병국·김양태·김희숙, 2007). 특히 안와전두피질은 편도체와 가깝게 위치해 있는데(Rubia, 2011), 단순한 정서조절과 달리 정서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인지적 문제를 해결하는 복합적인 상황에서 활성화되므로(최은아, 2018) 전반적인 사회·정서적 문제 해결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과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정서적 집행기능은 보상과 처벌, 감정과 관련된 의사결정, 공격성, 공포와 소거, 감정적 공감에 관여하며(이상신·유병국·김양태·김희숙, 2007), 인지적 집행기능은 계획과 평가, 문제해결, 인지적 유연성, 작동기억, 주의전환 등의 작업을 수행하므로(양옥승, 2011) 집행기능은 아동의 학교적응(서재화·김현경, 2018; Jacobson, Riesch, Temkin, Kedrowski, & Kluba, 2011) 및 학업성취와 연관될 뿐만 아니라(Foy & Mann, 2013)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므로 또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김보영, 2016; 전숙영, 2014). 따라서 집행기능이 저하될 경우 지속적인 부정적 파급효과의 악순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민미희, 2018). 즉 집행기능은 자기조절 및 통제, 동기, 사회, 정서적 문제해결 위한 일련의 과정과 연관됨으로써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일반 아동의 집행기능 수준을 초기에 진단, 변별하기 위해 집행기능 곤란 척도가 개발된 바 있다(송현주, 2014).

이러한 집행기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특히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변인들의 효과성이 다양하게 증명되어져 왔다.

집행기능은 전두엽의 발달에 기원하므로 집행기능은 청소년기에 가장 급격하게 발달하나 (McCloskey, Perkins & Diviner, 2008) 이는 생의 초기 신경망의 발달에서 기원하며(송현주, 2012) 유아기에 일어나는 뇌의 급격한 가지치기는 부모와의 애착 및 양육환경에 영향을 받으므로(정미라·권정윤·박수경, 2011) 어머니는 집행기능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다.

관련하여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과 집행기능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생후 2세의 어머니의 우울 및 2-6세 사이에 어머니의 우울감의 증가는 6세 유아의 집행기능에 부적영향을 미쳤다(Hughes, Roman, Hart & Ensor, 2013). 또한 아동의 집행기능은 어머니의 우울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매개하였다(Roman, Ensor, & Hughes, 2016). 또한 생의 초기에 어머니의 우울감은 청소년기에도 종단적으로 두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데(Reising, et all, 2018), 영아기 어머니의 우울감은 집행기능을 매개하여 학령기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Wang & Dix, 2017). 또한 어머니의 행복은 다운증후군 아동의 집행기능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Malmer et all, 2015).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 상태는 집행기능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집행기능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들을 통해서 어머니의 정서 상태와 집행기능과의 연관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우울한 어머니는 적대적이거나 둔감하고, 부정적으로 아동에게 반응하거나 아동의 흥미나 욕구와 맞지 않는 환경을 제공하고 의사결정이나 탐색을 방해한다(Dix, Moed & Anderson, 2014; Lovejoy, Graczyk, O'Hare, & Neuman, 2000). 이러한 어머니들의 양육행동은 전두엽의 발달을 저해함으로써 집행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Blair & Ursache, 2011).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집행기능이 어머니의 상호작용과 우울에 영향을 받으며(Gueron-Sela et all, 2018), 아동을 지지하고 덜 통제하며 열린 응답을 중심으로 하는 양육방식(Spruijt, Dekker, Ziermans & Swaab, 2018) 및 애정적 양육행동(유란희·김선희, 2017), 정서사회화 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었음을 밝혔다(강도연·김희태, 2018). 또한 어머니의 집행기능 기술은 아동의 집행기능 기술과 유의미한 연관이 있다(Kim, Shimmonaeda, Giuliano & Skowron, 2017). 따라서 어머니의 정서 상태는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집행기능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어머니의 정서 상태를 위주로 집행기능과의 연관성이 규명되었는데, 부정적인 정서 상태는 긍정적 정서 상태와 연속된 심리적 변인이라기보다 독립된 심리적 구인으로 각각 다른 행동을 추동할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무엇보다 건강한 심리 상태와 밀접하게 관련 있음을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

으므로(채혜경, 제희선, 2017) 이와 관련된 변인을 중심으로 집행기능과의 연관성을 추론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행복과 자존감은 아동의 성장 및 발달에 있어 직접,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므로 양육환경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어머니의 행복은 아동의 애착(한희승·이정화, 2012), 낙관성(이은희, 2012), 행복감(최아론·이영순, 2015)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어머니의 자존감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임현주, 2017), 자아탄력성(신은경·문혜련, 2013), 아동의 문제행동감소(정은주·최외선, 2006), 정서적 반응(한정원·이하나, 2017) 등 사회정서발달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특히 이러한 사회정서발달은 계획, 조절, 통제와 관련된 집행기능과의 발달과 관련성이 있다. 즉 자존감, 행복감과 같은 심리적 자원을 구축한 어머니는 따뜻하고 지지적인 상호작용을 유아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인내심을 가지고 유아의 반응을 기다려 주므로 발달에 긍정적인 양육환경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정서 상태는 유아와 분리되지 않고 반영되므로, 자존감과 행복이 집행기능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자존감과 행복감은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개인의 충만한 삶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궁극적으로 이는 유아 및 아동의 삶의 질과도 연관이 된다. 그러나 아동의 집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의 종단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한편 어머니의 자존감과 행복감은 개인을 둘러싼 다층적인 맥락에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맥락은 아동발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가 된다는 점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0%가 넘어가는 현대사회에서(통계청, 2019) 많은 어머니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모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직장에서의 '비난'에 직면하거나 '수퍼우먼의 삶'을 요구받으며(이희정, 2009) 이는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아동과의 관계 및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에 대한 연구들은 가정-직장 역할갈등, 직업특성이나 취업형태, 근무시간 및 연장근무 등을 포함한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최문주, 2017) 이는 어머니 개인의 정서적 상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김선형, 2017). 일자리 만족도는 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및 제반 사안들에 대한 것으로 내적 만족감을 높여 주는 요인이라는 점에서(강영희, 2016) 아동의 집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체계로서 어머니의 일자리 만족도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편 유아기 어머니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서 오는 혼란으로 스트레스가 최고조로 올라가는 시기라 제시된 바 있으며(김선형, 2017) 이러한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정서적 안녕감과 부적 상관을 가진다. 그러나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분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이루어졌는데, 취업모의 어머니는 일과 가정의 역할갈등을 겪으며 심리적 부담과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양육 이외에 다른 스트레스 요인에 직면한다(박봉선·엄명용, 2016). 따라서 어머니가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을 포함하여 아동발달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의 심리적 상태는 연속적인 특징을 가지므로,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일자리 만족도가 행복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이 종단적으로 그 이후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유아기의 어머니의 정서적 상태가 학령기까지 지속되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의 일자리 만족도, 일상적 스트레스, 행복감, 자존감은 어느 한 시점에서 아동의 집행기능과 관련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이러한 횡단연구에서는 변수들 간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없으며, 인과적인 결론을 내리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선행성을 고려하여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반복측정된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유아기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일자리 만족도, 행복과 자존감이 이후의 행복과 자존감에 종단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며, 아동의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은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분석방법이기에(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이를 활용하여 어머니의 행복감과 자존감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각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의 기초가 되는 집행기능에 있어 유아기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동시에 어머니의 정서적 자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적 지원을 위한 실증적인 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관련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 일자리 만족도, 행복과 자존감 및 아동의 집행기능곤란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어머니의 행복과 자존감은 시간의 경과에도 자기 효과와 교차지연효과를 가지는가?

셋째, 어머니의 행복과 자존감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제시한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f Korea Children, PSKC) 자료를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일자리 만족도, 행복감, 자존감, 일상적 스트레스를 살

퍼보기 위해 2014년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행복감과 자존감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 보기 위해 2015년 8차 년도와 2016년 9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살펴보기 위해 2016년 9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데이터 정제를 위해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 전반적 일자리 만족감, 자존감, 행복감 및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변인의 응답 결측치를 제외하여 593명의 응답자료를 추출하였다. 이후 측정변수들에 대한 일변량 이상치를 살펴보기 위해 측정변수를 Z점수로 전환하여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Z점수가 ± 3 이상이면 이상치로 간주하기에(우종필, 2016) 20개의 이상치를 삭제하여 가족 데이터가 573개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다변량 이상치 점검을 위해 마할라노비스 거리 방법을 이용한 결과 67개의 이상치가 발견되어 삭제하여 최종 506명이 분석 대상이 되었다. 연구의 시작 점인 2014년 7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한 연구 대상에 대한 정보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정보(N=506)

변인		빈도(%)
모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2(0.4)
	고등학교 졸업	124(24.5)
	전문대 졸업(3년제 이하 기능대학)	138(27.3)
	대학교 졸업(4년제 이상)	203(40.1)
	대학원 졸업	39(7.7)
거주지역	대도시	210(41.5)
	읍/면	277(54.7)
	중소도시	19(3.8)
어머니 평균연령		36.78세
유아성별	남	254(50.2)
	여	252(49.8)
유아 평균월령		75.16 개월

2. 연구도구

가.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Subjective Happiness Scale, SHS)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조사한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4 문항의 점수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은 Lyubomirsky, S.와 Lepper, H. S.(1999)의

개인홈페이지에 있는 'Subjective Happiness Scale'을 번역하여 예비조사 실시 후 주관적 행복감 도구 문항을 확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인의 경우에는 7점 likert 척도로 전혀 행복하지 않다(1점)에서 매우 행복하다(7점)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은 4점에서 28점으로 평정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7차 자료의 신뢰도는 .864, 8차 자료의 신뢰도는 .887, 9차 자료의 신뢰도는 .889이다.

나. 어머니의 자아존중감(Rosenberg self-Esteem Scale)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을 살펴보고자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조사한 자아존중감 10문항의 점수를 활용하였다.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89)가 제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원도구의 10번 문항의 경우 'At times I am no good at all'로 기술된 원문의 의미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문항을 '때때로 내가 무익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로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중 평정하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으로 진술한 몇 개의 문항은 역채점하여 단순 합계여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지녔다고 해석할 수 있다. 7차 자료의 신뢰도는 .897, 8차 자료의 신뢰도는 .887, 9차 자료의 신뢰도는 .901이다.

나.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Screening Questionnaire)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살펴보고자 한국아동패널 조사에서 활용된 집행기능 곤란 40문항의 점수를 사용하였다. 집행기능 곤란 도구는 송현주(2014)가 개발·타당화한 도구로서 계획-조직화 곤란 11문항, 행동통제 곤란 11문항, 정서통제 곤란 8문항, 부주의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아니다(1점)에서 자주 그렇다(3점) 중에서 평정하는 3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가 아동의 평소 행동을 보고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집행기능 곤란이 높으므로 집행기능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941이다.

라.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살펴보고자 한국아동패널 조사에서 활용된 '평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으십니까?'라는 문항의 점수를 사용하였다. 1점에서 4점까지 응답범위를 가진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마. 어머니의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

어머니의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한국아동패널 조사에서 활용된 자신의 '주된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묻는 문항의 점수를 사용하였다. 1점에서 5점까지 응답범위를 가진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유아기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아동기의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RCL)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기 회귀교차지연모형은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추정하는 기법으로(송태민·송주연, 2014) 시간에 따른 변수들의 양방향적 관계를 다면적으로 분석하여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방법이다(조춘범·김동기, 2010; 홍세희·박민선·김원성, 2007). 즉,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수들 간의 상호인과적 방향성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분석방법이기에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양방향적인 상호작용을 살펴본 후 이것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검증하는데 적합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의 7차, 8차, 9차 자료의 결측치를 확인하기 위해 SPSS 23.0을 활용하여 케이스삭제를 실시하였으며,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SPSS 23.0 및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통계프로그램인 AMOS 23.0을 사용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측정동일성, 경로동일성, 오차분산동일성 순으로 검정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경로동일성은 관측변수의 회귀계수가 시간에 따라 동일하지 검증하며 오차분산동일성은 각 시점에서 설정된 오차 간의 공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하는 것이다(송태민·송주연, 2014). 본 연구에는 경로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측정동일성을 제외한 경로동일성과 오차분산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을 차례대로 적용하여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기저 모델을 설정 후 공분산 설정 모델, 자기회귀계수 동일성제약, 교차지연효과 동일성 제약모델, 측정변수의 오차 공분산 동일성 제약모델을 차례대로 설정하여 7개의 경쟁모형을 통해 적합한 모형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χ^2 값과 RMSEA, CFI, TLI 수치를 사용하였다. 이 지수들은 표본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으면서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성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Rex, 2019). 대체로 RMSEA값은 .05이하이고 CFI와 TLI 값은 .90이상

이면 아주 좋은 적합도로 평가되나 Hair(2014)에 의하면 표본의 수가 250명이 넘고 변인의 수가 12개 이상일 때에는 RMSEA값이 .07이하이고 CFI값이 .92이상일 시 적합한 모델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Hair(2014)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요인별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가. 기술통계

측정변수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정규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 및 첨도를 살펴보았다. 왜도는 2가 넘지 않고 첨도는 7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었다(West, Finch, & Curran, 1995). 평균 및 분산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측정변인의 기술통계치(N=506)

변인	평균	분산	왜도	첨도
계획조직화	16.3794	17.692	.523	-.198
행동통제곤란	14.1535	11.721	1.273	1.461
정서통제곤란	11.5767	12.684	1.059	.792
부주의	15.4874	17.936	.637	-.082
모자존감7차	37.9831	35.824	-.365	-.083
모자존감8차	38.4705	34.574	-.347	-.135
모자존감9차	38.1214	34.813	-.271	-.215
모행복7차	21.0438	17.018	-.505	.059
모행복8차	21.1501	17.094	-.335	-.339
모행복9차	20.7589	17.278	-.513	.206
일상적 스트레스	2.98	.390	-.112	-.036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3.77	.522	-.704	1.659

나. 상관분석 결과

아동의 집행기능곤란 하위영역 및 어머니의 행복감, 자존감, 일자리 만족도, 일상적 스

트레스 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다음 <표 3>과 같다. 어머니의 행복감과 자존감은 일자리 만족도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나 일상적 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일자리 만족도는 아동의 집행곤란의 하위 영역 중 행동 통제 곤란을 제외한 다른 변인과는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일상적 스트레스는 계획조직화 곤란을 제외한 다른 변인들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일자리 만족도가 행복감과 자존감의 종단적 과정 속에서 유아의 집행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표 3> 측정변인의 상관(N=506)

	a	b	c	d	e	f	g	h	i	j	k	l
a	1											
b	.61**	1										
c	.41**	.51**	1									
d	.55**	.51**	.33**	1								
e	-.24**	-.20**	-.19**	-.13**	1							
f	-.27**	-.22**	-.19**	-.13**	.74**	1						
g	-.31**	-.30**	-.26**	-.21**	.68**	.73**	1					
h	-.16**	-.19**	-.21**	-.09*	.64**	.51**	.52**	1				
i	-.20**	-.20**	-.19**	-.09*	.54**	.66**	.54**	.60**	1			
j	-.26**	-.27**	-.31**	-.21**	.52**	.55**	.69**	.60**	.63**	1		
k	-.07	-.10*	-.04	-.03	.22**	.21**	.22**	.20**	.23**	.16**	1	
l	.07	.12**	.18**	.11**	-.30**	-.24**	-.25**	-.42**	-.32**	-.32**	-.1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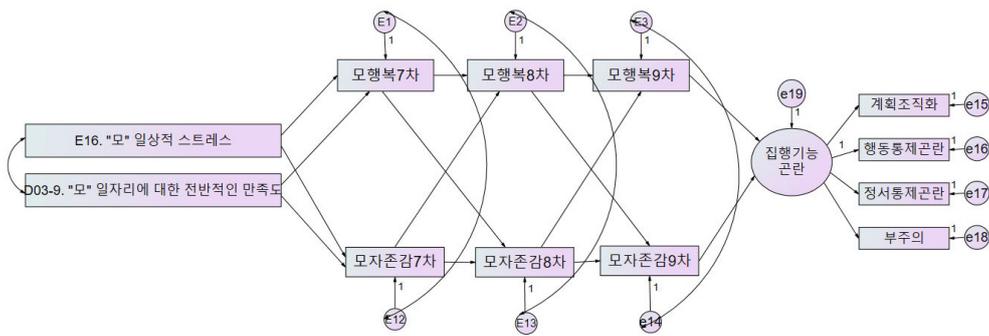
a: 계획조직화, b: 행동통제곤란, c: 정서통제곤란, d: 부주의, e: 모자존감7차, f: 모자존감8차, g: 모자존감9차, h: 모행복7차, i: 모행복8차, j: 모행복9차, k: 일자리만족도, l: 일상적 스트레스

2. 어머니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이 유아의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

가. 어머니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의 자기회귀교차지연 모델 분석

어머니의 자존감과 행복감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측정동일성과 오차공분산 동일성 제약을 순차적으로 가해 살펴본 모델의 적합도 수치는 다음 <표 4>와 같다. χ^2 값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므로 (Rex, 2019)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적합한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였다.

비제약 모델인 모형 1은 적합도 수치가 허용수준을 초과하여 적절하지 않은 모형으로 판명되었으며 오차간 공분산을 설정한 모델인 모형 2의 경우 적합 수치가 높아져 공분산을 추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모형 3과 같이 행복감 자기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결과 RMSEA값이 근소하게 좋아져 시간에 따른 행복감의 자기회귀계수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 4와 같이 자존감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델은 TLI값이 근소하게 좋아졌으나 Hair(2014)가 제시한 기준에 의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교차회귀계수를 제약한 모델인 모형 5와 모형 6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행복감과 자존감 사이의 교차회귀계수를 모두 제약한 모형 6이 모든 적합도 지수에서 근소하게 높아졌으며 Hair(2014)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 6을 최종 연구모형으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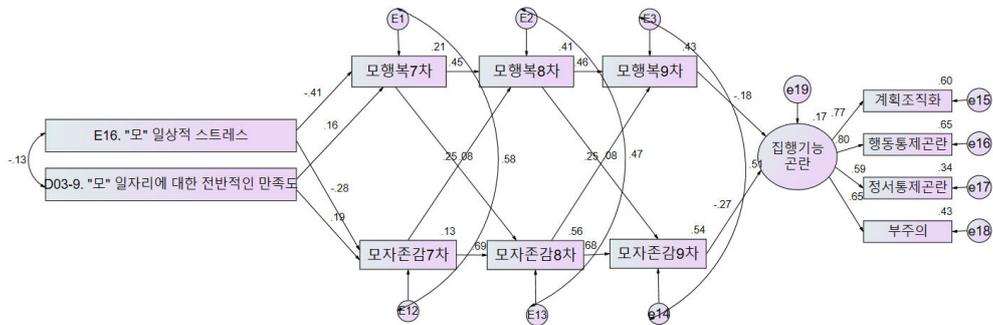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표 4> 요인의 모형 적합도와 모형에 대한 결과(N=506)

		χ^2	df	TLI	CFI	RMSEA
모형1	비제약모델	648.417	47	.701	.787	.159
모형2	오차간 공분산 설정모델	161.053	44	.938	.959	.073
모형3	행복감 자기회귀계수 동일성 제약모델	161.155	45	.940	.959	.071
모형4	자존감 자기회귀계수 동일성 제약모델	161.514	46	.941	.959	.071
모형5	자존감에서 행복감 사이의 교차회귀계수 동일성 제약모델	161.599	47	.943	.959	.069
모형6	행복감에서 자존감 사이의 교차회귀계수 동일성 제약모델	162.270	48	.944	.960	.069
모형7	자존감과 행복감 오차공분산 동일성 제약 모델	195.369	49	.930	.948	.077

나.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대한 어머니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의 영향력



[그림 2] 최종모형

최적모형을 토대로 유아기 어머니의 일자리 만족도, 일상적 스트레스, 자존감, 행복감,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종단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5>의 결과와 같이 어머니의 일자리 만족도는 정적으로 행복감($\beta=.155, p<.001$)과 자존감($\beta=.189,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일상적 스트레스는 부적으로 행복감($\beta=-.409, p<.001$)과 자존감($\beta=-.282, p<.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차년도 어머니의 자존감은 8차년도의 자존감에($\beta=.694, p<.001$), 8차년도 자존감은 9차년도의 자존감에($\beta=.679, p<.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기 어머니의 자존감은 연속적으로 아동기까지 지속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7차년도의 어머니의 행복감 역시 8차년도의 행복감에($\beta=.446, p<.001$) 영향을 미치며 또한 8차년도의 행복감은 9차년도의 행복감에 영향($\beta=.464, p<.001$)을 미치므로 유아기 어머니의 행복감의 영향력이 아동기까지 지속적으로 연관되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7차년도의 자존감은 8차년도의 행복감에($\beta=.252, p<.001$), 8차년도의 자존감은 9차년도의 행복감에($\beta=.252, p<.001$)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7차년도의 행복감은 8차년도의 자존감에($\beta=.080, p<.01$), 8차 시기의 행복감은 9차년도의 자존감에($\beta=.081, p<.01$)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향력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자존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행복감 증진을 위해서 자존감 증진이 우선시 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9차년도의 자존감과 행복감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모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 자존감의 영향력($\beta=-.266, p<.001$)이 행복감($\beta=-.176, p<.01$)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최종모형의 모수추정치(N=506)

경로		<i>B</i>	<i>S.E.</i>	β	<i>C.R.</i>
일상적스트레스	→ 행복감7차	-2.600	.254	-.409	-10.241***
일자리만족도	→ 자존감7차	1.676	.371	.189	4.510***
일상적 스트레스	→ 자존감7차	-2.697	.400	-.282	-6.743***
일자리 만족도	→ 행복감7차	.917	.236	.155	3.888**
행복감7차	→ 행복감8차	.454	.032	.446	14.415***
자존감7차	→ 자존감8차	.681	.028	.694	24.683***
자존감7차	→ 행복감8차	.171	.021	.252	7.974***
행복감7차	→ 자존감8차	.118	.041	.080	2.898**
행복감8차	→ 행복감9차	.454	.032	.464	14.415***
자존감8차	→ 자존감9차	.681	.028	.679	24.683**
행복감8차	→ 자존감9차	.118	.041	.081	2.898***
자존감8차	→ 행복감9차	.171	.021	.252	7.974***
행복감9차	→ 집행기능곤란	-.123	.044	-.176	-2.773**
자존감9차	→ 집행기능곤란	-.125	.030	-.266	-4.169***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7차, 8차, 9차 자료를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머니의 행복감과 자존감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회귀교차 지연모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와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일자리 만족도는 어머니의 행복감과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직업 등과 같은 외현적 조건들이 행복의 주요 요인을 밝히는 여러 선행연구(문수경·이무영·박상희, 2009; 박영신·김의철·박선영, 2013)와 일치하는 결과로 보인다. 또한 그 효과 크기를 비교해본 결과 일상적 스트레스가 행복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된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되었다.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양육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머니는 양육자 이외의 다층적인 정체성에 따른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어머니가 느끼는 삶의 어려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또한 행복감은 개개인이 느끼는 삶의 질과 주관적 인식에서 시작하여(Seligman, 2009) 어머니가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요소와 성격적 특질 등과 같은 관계적, 개인적 변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Ben-Shahar, 2007),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규정하고 행복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행복과 관련 있는 다양한 변인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어머니의 일자리 만족도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모의 일자리 만족도와 관련된 추가적인 탐색이 요구되었다. 특히 유아기에서 초등 전이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어머니들은 아동의 달라진 일과에 따라 새로운 역할 수행에 대한 요구를 받게 된다(신수희, 2018). Barnett(1994)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 수행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직장과 가정의 역할 갈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관련하여 권미경, 최은영, 김나영, 김혜진과 임준범(2016)의 육아 실태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맞벌이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절대적인 비율로 육아를 전담하며, 자녀 양육 시 급할 때 돌봐줄 사람을 찾기 힘든 것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만족도는 안정성이나 복지, 동료와의 관계나 근무환경, 발전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나, 취업모가 처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육아와 양립할 수 있는 직장은 일자리 만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관련하여 유희정(2014)은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분리한 육아지원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취업모의 일자리 만족도를 이해하기 위해 어머니들의 요구사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권미경 등(2016)이 제안한 바와 같이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어머니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어머니의 행복감, 자존감은 시간에 따라 강한 자기회귀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어머니의 행복감은 이전의 어머니의 행복감 수준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되며, 어머니의 자존감 변인 또한 이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어머니의 행복감과 자존감은 연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행복감이 시간에 따른 자기회귀효과가 있다는 것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한 변인인 주관적 안녕감이 시간에 따라 강한 자기회귀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김민규·신인영·강미리·김주환, 2011). 또한 자존감은 세상에 대한 일종의 반응양식과 해석방식을 결정지으며 부정적인 자존감을 긍정적인 수준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요구된다는 점에서(De Ruither, Van Geert, & Kunnen, 2017) 지속적인 자기회귀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어머니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기를 요구받기도 하는데(양소남·신창식, 2011) 이때 경험하는 실패는 자기회귀효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낮은 자존

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전통적인 성역할과 관련하여 어머니가 가지는 이상적인 어머니상에 대한 완벽주의 신념은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불안의 원인이 된다(오유미, 2014). 전통적인 어머니상과 관련된 모성이데올로기를 가진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며(조숙·정혜정·이주연, 2015) 양육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층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실패를 경험한 어머니는 자신의 모성에 대한 의심과 부정적 평가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이진희·배은경, 2013). 따라서 초기에 어머니의 자존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육아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심리적 지원과 이에 대한 실제적 방안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양육문화를 통해 양육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립이나 단절로부터 어머니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머니의 행복감과 자존감은 시간에 따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교류적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즉, 이전 시점의 어머니의 행복감은 다음 시점의 어머니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이전 시점의 어머니의 자존감은 어머니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행복감과 자존감과의 관계가 만성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 중 어머니의 행복감과 자존감의 종단적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미비하여 비교하기 어렵지만,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은 행복감을 보이고(Myers & Dinner, 1995). 자아존중감과 행복과의 상관성이 높음을 밝힌 연구(Veenhoven, 1994; Grob, Little, Wanner, & Wearing, 1996; Waston & Walker, 1996)에서 볼 때,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존중하는 자기수용이 행복의 주요한 요인임을 시사하며 이러한 횡단적 단면연구에서 미루어볼 때 상호교차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는 자존감을 행복의 전제조건 중 하나로 여긴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Maslow, 2009).

셋째, 유아동기의 어머니의 긍정적인 심리적 자원이 높을수록 집행기능 곤란에 부적 영향을 준다. 집행기능은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작동하며, 인지, 정서, 행동적 기능을 안내, 지시, 관리하는 총체적인 책임의 과정으로(Gioia, Isquith, Guy, & Kenworthy, 2000) 유아기 및 아동기를 걸쳐 발달한다. 최근 이러한 아동의 집행기능 발달이 아동의 초기 관계적 경험 특히, 부모-자녀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지지되어 왔는데(Rochette & Bernier, 2016),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민감성과 스캐폴딩, 자극제공, 통제(Fay-Stammach, Hawes, & Meredith, 2014), 주 양육자와의 관계 및 양육환경이 집행기능이 영향을 미쳤다(Diamond, 2013).

한편 이러한 상호작용 방식에는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어머니의 정서적 자원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채혜경·제희선, 2017). 따라서 어머니의 행복과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집행기능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개인적 변인이 아동의 집행기능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어머니의 우울감을 위주로 이루어져 (Reising et all, 2018) 긍정적 변인과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수준이다. 뇌 발달에 기초가 되는 어머니와의 긍정적 애착관계는 (Tronick, 2007) 어머니의 행복에 영향을 받는다(한희승·이정화,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어머니의 개인변인인 행복감과 자존감이 아동의 집행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의의가 있으며, 아동의 집행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특히, 어머니의 긍정적인 사회정서적인 변인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불어 집행기능은 지속적인 발달의 순환적 과정을 지원하는 변인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데, 이는 아동이 속한 미시적, 거시적 체계 안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어머니가 맺고 있는 사회적 맥락 또한 아동의 개인적 발달에 중요한 맥락이 되며,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맥락은 어머니가 속한 관계적 맥락에 의해 조절되거나 영향을 받는다. 즉 다양한 관계망들은 상호 연계적으로 순환한다. 따라서 아동이 참여하는 사회적 맥락과 이에 영향을 주는 거시적 맥락들의 상호작용을 탐색함으로써 변인들의 양방향성을 고려한 총체적인 차원에서 학령초기 아동의 집행기의 발달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연구 7차, 8차, 9차년도에 걸친 세 시점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는 종단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최소한의 시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점을 추가하여 어머니의 스트레스, 어머니의 행복감 및 자존감 간의 종단적 관계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아동의 집행기능과 어머니의 사회정서적 변인인 행복감, 자존감과의 관계를 밝혔으나, 양육실체가 어떻게 자존감과 행복감을 매개하여 아동의 집행기능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위에서 제시한 논의에 근거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의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일자리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구성원 중심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아이를 돌봐줄 사회적 지원의 부재는 취업모의 어려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권미경 외, 2016)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한편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한 육아지원정책은 비 취업 여성과 달라야 하며(유희정, 2015), 취업모의 노동 시장의 특성 및 제반사항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

다(Esping-Andersen & Billari, 2015). 취업모의 근로시간과 직업군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권소정·이강이, 2018)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되 취업모의 실제 요구사안에 기반 한 다양하고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정책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양육의 주체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행복감과 자존감을 증진을 통해 학령초기 아동의 집행기능의 발달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유아기부터 학령기까지 어머니의 행복감과 자존감은 종단적인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양육과정에서 어머니의 자존감과 행복감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규명하고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어머니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가족구조의 역학과 기능의 변화 속에서 달라지기 때문에(김선형, 2017), 가족의 발달주기 속에서 어머니가 요구받는 실질적 과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부모를 위한 제도화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각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부모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와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이미화·김은설·김길숙·이진화·윤지연, 2016). 이러한 제도화된 부모교육을 통해서 학령초기 아동의 집행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양육역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집행기능 곤란에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황혜련·송현주, 2013), 가족의 체계 속에서 아동이 발달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모됨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을 단위로 한 프로그램이 구성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도연·김희태(2018).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유아의 실행기능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3(1), 259-279.
- 강영희(2016). 고학력 취업여성의 일자리 만족과 생활만족의 결정요인 탐색. 젠더와 문화, 9(1), 101-129.
- 권미경·최은영·김나영·김혜진·임준범(2016).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권소정·이강이(2018). 부모-자녀 상호작용, 직·간접 돌봄지원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취업모의 근로특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12(2), 57-82.
- 김민규·신인영·강미리·김주화(2011).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통한 대인관계와 주관적 안녕감의 인과관계 검증. 한국 HCI학회 학술대회, 1142-1145.

- 김보영(2016). 유아의 실행기능, 자아존중감, 정서지능이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11(3), 29-51.
- 김선형(2017). 유아기 자녀 어머니의 행복플로리시 척도 개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주환·김민규·홍세희(2009).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 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문수경·이무영·박상희(2009).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가족복지학, 14(4), 137-153.
- 민미희(2018).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및 통제적 양육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2(3), 91-121.
- 박봉선·엄명용(2016). 취업모의 직장-가정 역할갈등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54, 7-39.
- 박영신·김의철·박선영(2013). 성인이 지각한 행복의 수준과 요인. 인간발달연구, 20, 153-184.
- 서재화·김현경(2018). 아동의 초등학교적응 및 집행기능의 종단적 발달경로: 어머니의 활동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기술의 역할. 유아교육연구, 38(5), 107-130.
- 송태민·송주영(2014). 빅데이터 분석방법론: 구조방정식과 다층모형을 중심으로. 서울: 한나래 아카데미
- 송현주(2012). 뇌기반 심리학적 치료와 집행기능. 한국심리치료학회지, 4(2), 77-87.
- 송현주(2014). 간편형 자기보고식 아동 청소년 집행기능 곤란 질문지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3(1), 121-137.
- 신수희(2018).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후 어머니의 양육불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신은경·문혜련(2013). 부모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유아의 자아탄력성.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3), 89-112.
- 양소남·신창식(2011). 어린자녀를 둔 일하는 어머니의 일 가족양립 고충. 보건사회연구, 31(3), 70-103.
- 양옥승(2011). 유아 자기조절의 의미: 두뇌 발달의 관점. 유아교육연구, 31(6), 479-492.
- 오유미(2014). 취학 전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모성이데올로기와 양육죄책감: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우종필(2016).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 유란희·김선희(2017).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38(2), 67-79.
- 유희정(2015). 취업모를 위한 육아지원정책의 과제. 젠더리뷰, 36, 40-53.

- 이미화·김은설·김길숙·이진화·윤지연(2016). 영유아기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전달체계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 10(3), 1-24.
- 이상신·유병국·김양태·김희숙(2007). 안와전두피질의 기능. 생물치료정신의학, 13(1), 36-44.
- 이은희(2012). 어머니의 행복감과 아동의 안녕감 및 낙관성의 관계.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희·배은경(2013). 완벽성의 강박에서 벗어나 '충분히 좋은 어머니'(good-enoughmother)로. 페미니즘 연구, 13, 35-75.
- 이희정(2009). 취업모의 삶의 질에 관한 변인 탐색 -전문직과 사무직 집단의 일 만족도를 중심으로-. 21세기사회복지연구, 6(1), 65-88.
- 임현주(2017).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9(4), 39-56.
- 전숙영(2014). 아동의 실행기능 결함 및 외·내현적 자기애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 아동심리치료학회지, 9(3), 91-107.
- 정미라·권정윤·박수경(2011). 영유아 관련 뇌 기반 연구에 대한 고찰. 유아교육연구, 31(2), 207-231.
- 정은주·최외선(2006).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태도가 아동의 문제행동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심리학적 미술치료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13(2), 255-258.
- 조숙·정혜정·이주연(2015).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모성이데올로기 인식과 양육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의 관계 비교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1), 25-49.
- 조춘범·김동기 (2010). 청소년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자기회귀교차지연효과 검증- 성별간 다집단 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4), 207-229.
- 채혜경·제희선(2017).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 어머니의 행복감, 양육태도, 가족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교육혁신연구, 27(4), 199-217.
- 최문주(2017). 영유아기 자녀에 초점을 둔 취업모 관련 변인 연구동향 분석.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아론·이영순(2015). 어머니의 행복감과 초등학교 자녀의 행복감 관계에서 자녀의 생활스트레스,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1), 337-351.
- 최은아(2018). 유아의 인지적 실행기능 및 정서적 실행기능의 구조 및 발달 경향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통계청(2019).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한정원·이한나(2017).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학령전기 아동의 정서적 반응성과 주의집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11), 628-636.
- 한희승·이정화(2012). 어머니의 행복이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영향. 인문학논

총, 30, 355-378.

홍세희·박민선·김원정(2007). 인터넷 중독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이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 성별간 다집단 분석. *교육심리연구*, 129-143.

황혜련·송현주(2013). 아동기 실행기능과 부모 양육태도. *재활심리연구*, 20(2), 149-167.

Antonini, T. N., Becker, S. P., Tamm, L., & Epstein, J. N. (2015). Hot and cool executive functions in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nd comorbid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Neuropsychological Society*, 21(8), 584-595.

Barnett, R. C. (1994). "Home-to-work spillover revisited: A study of full-time employed women in dual-earner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647-656.

Ben-Shahar, T. (2007). *Happier: Learn the secrets to daily joy and lasting fulfillment*. NY: McGraw-Hill.

Blair, C., & Ursache, A.(2011). A bidirectional model of executive functions and self-regulation. In K. D. Vohs & R. F. Baumeister(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Research, theory, and applications*(2nd ed., pp. 300-320). New York, NY: Guilford Press.

De Ruiter, N. M. P., Van Geert, P. L. C & Kunnen, E. S. (2017) Explaining the "How" of Self-Esteem Development: The Self-Organizing Self-Esteem Model.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1(1), 49-68.

Diamond, A. (2013). Executive func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4, 135-168.

Dix, T., Moed, A., & Anderson, E. R. (2014). Mothers' depressive symptoms predict both increased and reduced negative reactivity: Aversion sensitivity and the regul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Science*, 25, 1353-1361.

Esping-Andersen, G., & Billari, F. C. (2015). Re-theorizing family demographic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1), 1-31.

Fay-Stammach, T., Hawes, D. J., & Meredith, P. (2014). Parenting influences on executive function in early childhood: A review.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8, 258-264.

Foy, J. G., & Mann, V. A. (2013). Bilingual children show advantages in nonverbal auditory executive function task.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ism*, 18(6), 717-729.

Gioia, G. A., Isquith, P. K., Guy, S. C., & Kenworthy, L. (2000). TEST REVIEW Behavior Rating Inventory of Executive Function. *Child Neuropsychology*,

6(3), 235-238.

- Grob, A., Little, T. D., Wanner, B., & Wearing, A. J. (1996). Adolescents well-being and ill-being: Different dimension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4*, 115-139.
- Gueron-Sela, N., Camerota, M., Willoughby, M. T., Vernon-Feagans, L. & Cox, M. J. (2018).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Mother-Child Interactions, and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54*(1), 71-82.
- Hair, J. F. (2014). *A primer on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s modeling*. Los Angeles : SAGE.
- Hughes, C., Roman, G., Hart, M. J., & Ensor, R. (2013). Does maternal depression predict young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A 4-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54*, 169-177.
- Jacobson, G., Riesch, S. K., Temkin, M. B., Kedrowski, K. M., & Kluba, N. (2011). Students feeling unsafe in school: fifth graders' experiences. *Journal School Nursing*, *27*(2), 149-159.
- Kim, M. H., Shimmonaeda, L., Giuliano, R. J., Skowron, E. A. (2017). Intergenerational associations in executive function between mothers and children in the context of risk.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64*, 1-15
- Lovejoy, M. C., Graczyk, P. A., O'Hare, E., & Neuman, G. (2000). Maternal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0*, 561-592.
-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2), 137-155.
- Malmir, M., Seifenaraghi, M., Farhud, D.D., Afrooz, G.A., Khanahmadi, M. (2015). Mother's happiness with cognitive - Executive functions and facial emotional recognition in school children with down syndrome. *Iranian Journal of Public Health*, *44*(5), 646-653.
- Maslow, A. H. (2009). *동기와 성격[Motivation and Personality]*. (오혜경 역). 서울: 21세기북스. (원저 2007년 출판)
- McCloskey, G., Perkins, L. A., & Van Diviner, B. (2008). *Assessment and intervention for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New York: Routledge
- Myers,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Poland, S. E., Monks, C. P., & Tsermentseli, S. (2016). Cool and hot executive function as predictors of aggression in early childhood: Differentiating between the function and form of aggression.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4*(2), 181-197.
- Reising, M. M. Bettis, A. H., Dunbar, J.P., Watson, K. H., Gruhn, M., Hoskinson, K. R., Compas, B. E. (2018). Stress, coping, executive function, and brain activation in adolescent offspring of depressed and nondepressed mothers. *Child neuropsychology, 24*(5), 638-656.
- Rex B. K. (2019). 구조방정식 모형의 원리와 적용[*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서울: 학지사(이현숙 역).
- Rochette, É., & Bernier, A. (2016). Parenting and preschoolers' executive functioning: A case of differential suscepti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40*, 151-161.
- Roman, GD., Ensor, R., Hughes, C. (2016). Does executive function mediate the path from mothers' depressive symptoms to young children's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42*, 158-170.
- Rubia, K. (2011). "Cool" inferior frontostriatal dysfunction in attention -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versus "hot" ventromedial orbitofrontal-limbic dysfunction in conduct disorder: A review. *Biological Psychiatry, 69*(12), 69-87.
- Seligman, M. E. P. (2009).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 (김인자 역). 안양: 물푸레.(원저 2011년 출판).
- Spruijt. A. M., Dekker. M. C., Ziermans, T. B., Swaab, H. (2018). Attentional control and executive functioning in school-aged children: Linking self-regulation and parenting strategie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66*, 340-359
- Tronick, E. (2007). *The Neurobehavioral and social-emotional development of infant and children*. New York: W. W. Norton.
- Veenhoven, R. (1994). Correlates of happiness, (3vols). Rotterdam, The Netherlands: RISBO, Center for Sicio-Cultural Transformation.
- Wang, Y., Dix, T. (2017). Mothers' depressive symptoms in infancy and children's adjustment in grade school: The role of children's sustained attention and executive fun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53*(9), 1666-1679.
- Waston, D., Walker, L. M. (1996). The long-term stability and predictive validity of trait measures o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567-577.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pp. 56-75). Thousand Oaks, CA, US: Sage Publications, Inc.

Zelazo, P. D., & Müller, U. (2002). Executive function in typical and atypical development. In U. Goswami(Ed.), *Blackwell handbook of childhood cognitive development*(pp. 445-469). Malden, MAL: Blackwell Publishing.

- 논문접수 4월 5일 / 수정본 접수 5월 24일 / 게재 승인 6월 6일
- 교신저자: 채혜경, 부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수료, sayaa@naver.com

Abstract

A Longitudinal Study on the Effects of Mother's Daily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n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Happiness Mediation Using ARCL

Je hui-seon and Che hye-k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other's happiness and self-esteem on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through mutual influence over time by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using the 7th, 8th and 9th year data of the children's panel. As a result, mother's daily stress and job satisfaction affected happiness and self-esteem. Also the influence of mother's happiness and self-esteem persisted over time. Self-esteem and happiness also affected each other. In addition, mother's self-esteem and happiness affected children's executive functioning longitudinally. Mother's social emotional variables were found to be important factors in promoting child's executive function, and multifaceted social support is needed to further enhance mother's emotional variables.

Keyword: happiness, self esteem, executive function, daily stress, job satisfaction